

## 기독교상담에서의 소망이해와 활용

안 경 승\*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소망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더 나아가 기독교상담에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소망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첫째, 일반상담에서 소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본다. 주로 인지·행동적 입장과 초월 및 긍정심리학의 이론들이 여기에 중점을 두었다. 대표적인 이론과 도출되는 통찰, 그리고 실제 접근 방법의 내용 역시 전반적으로 이해한다. 둘째, 기독교의 소망이해를 연구하며, 일반이론과의 공유점과 구별점을 찾아본다.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의 개념적 이해와 함께 구원, 영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소망이 주는 미래적이고 현재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밝힌다. 앞의 연구를 통합하여 기독교상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망중심의 상담이 무엇인지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한다. 우선 소망이 상담과정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대화의 내용으로 자리 잡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상담자 자신의 소망정도가 높아야 하고, 이를 질문과 이야기를 통해 확대하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다음은 신뢰 구축하기로 소망이 자라가는 상담 토양을 만드는 작업에 집중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필요하고, 이를 보완하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관계와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약속 확인하고 구현하기에서는 소망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채워지고 그것을 기대하고 누리는 경험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주제어:** 소망, 기독교상담, 영원, 신뢰, 하나님의 약속

- 
- 논문 투고일: 2020년 3월 25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4월 27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5일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
  - 본 연구는 2020년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I. 여는 글

자신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 많은 경우를 경험한다. 좋은 성적을 위해서 잠을 포기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연애를 포기하며 성공을 위해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한다. 그런데 어떤 것을 포기해도 그 반대급부의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연이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선택을 위한 포기라기보다는 포기 그 자체에 머물게 되고 점차 절망과 무기력에 빠진다. 자꾸 포기를 하니깐 더 포기하게 되는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지는 개인과 사회 마다 다를 수 있겠다. 어떤 이유이든 특별히 꿈과 기대로 가득차야 할 청년들이 적잖게 포기와 절망과 무기력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

열악한 삶의 현실이 포기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일컬어 일본은 사토리(달관)세대, 빙하기세대, 유럽은 1000유로세대, 이케야세대 등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2000년대부터 있었던 88만원세대,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란 용어에 이어서, 2011년에 한 신문사의 특별취재팀이 만들어낸 신조어인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의 포기)가 등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삼포가 이포나 일포로 줄어들기 보다는, 오포, 칠포, 그리고 십포 혹은 완포, 전포세대 등으로 확대되고 어차피 다 포기해야하기에 지금은 N포세대라고 말한다. 어찌 보면 ‘포기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또 다른 호소이고, 누군가 무언가가 자신을 포기하지 말게 해달라는 외침이기도 할 것이다. 십포까지 하나하나 더해가다가 마지막 포기는 꿈과 희망이 없기에 삶까지 포기한다는 것이다. 아홉 가지를 포기하면서도 포기

하면 안되고 포기가 안됐던 것이 ‘희망’이다. 그러나 ‘희망’이 포기되면, 십일포, 십이포는 더 이상 의미를 상실한다. 포기의 주체인 그 사람의 삶까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이다.

논문은 산다는 것은 소망을 갖는 것이고, 소망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sup>1)</sup> 숨이 붙어 있고 심장이 뛰고 뇌가 기능하는 한 소망이 있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고 살아 가야 할 이유가 있고 사랑을 나눌 사람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기독교의 소망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모든 육체의 한계를 뛰어 넘어 영원을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고, 그 바라봄의 자원이 현재의 삶에 생기를 붙여 넣게 하는 신비로 작용한다. 논문은 이 소망이 절망과 무기력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를 구체화한다. 첫째, 일반상담에서의 소망 활용을 살피고 도움이 되는 통찰을 살핀다. 둘째,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의 독특성에 근거해서 기독교상담에서 소망을 활용하기 위한 통합적 방향을 제시한다.

## II. 펴는 글

### 1. 일반상담에서의 소망

최근까지도 심리학이나 성격이론 같은 인간에 대한 과학적 연구 영역 내에 그 이론이나 방법론에 있어서 미래적 국면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다. 소망을 상담 현장에 직접적으로 관여시키려는 것에 대한 부담을

---

1) 희망과 소망은 영어 hope와 같은 의미로 한문자의 의미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논문에서는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이후의 내용에서는 기독교 공동체에 더 친숙한 ‘소망’으로 표현한다.

가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인간의 병리에 대한 과거지향적인 분석과 대안제시, 소망의 개념에 대한 다양하고 어떤 때는 상반되는 듯 보이는 이해(Herth 2000; 2001; Snyder 1995), 소망에 근거한 상담이 그 과정과 기법에 있어서 정교화 되지 못한 점(O'Hara & O'Hara, 2012; Weis & Speridakos, 2011), 소망은 종교에서나 다뤄지는 형이상학적 성격을 가진다는 인식(Kinghom, 2013; Olsman et al., 2014) 때문이다.

그러나 차츰 소망이 가진 실증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그 결과를 찾아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대부분의 결과는 소망을 개입한 상담이 유연한 생각, 긍정적 자기 대화, 환경 적응, 용서 성향, 인내, 건강과 면역체계 등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Barnett 2014; Lopez et al., 2004; Ripley et al., 2016; Snyder, Rand, & Sigmon, 2002; Worthington, et al., 1997). 소망 개념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로 이해되고 있으나, 소망을 만들어 내는 구성요소에 대한 차별된 이해,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는 철학적 뿌리에 따라 그 정의와 접근이 다르다. 우선 소망을 인간됨의 핵심 측면인 지·정·의를 중심으로 한 개인적 역량의 차원으로 보는 흐름이 있다. 여기에는 소망을 정서, 특히 긍정감정으로 이해하거나(Fredrickson, 1998; 2004; Scioli et al., 1997), 목표설정과 성취와 관련한 인지·행동의 주도적 특성으로 접근하는 이론이 있다(Snyder, 1994; 2002; Stotland, 1969). Scioli 외(2011: 78)는 소망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산출된 지배, 애착, 생존, 영적 시스템이라는 네 가지 통로로 구성된 정서 망과 같다고 설명한다.

반면에 인지·행동을 강조하는 이들은 소망하는 결과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통제와 인내 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학자인 Snyder 외(1991: 287)는 소망을 “성공적인 주도요인(agency, 목표지향적 에너지)과 경로요인(pathways, 목표를 실현하기 위

한 계획)의 상호작용 속에서 도출된 인식에 기초한 긍정적인 동기부여 상태”로 정의했다. 이후 그들은(Snyder et al., 1991: 571)은 소망의 정의를 다듬어서 “소망은 성공적인 주도요인(agency, 목표지향적 결정)과 경로요인(pathways,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상호작용 속에서 도출된 인식에 기초한 인지성향”으로 설명한다.

이들이 소망을 설명하는 목표 중심의 사고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목표, 주도요인, 그리고 경로요인이다. 목표는 정신활동에 있어서 중추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소망이론에 있어서도 닳과 같은 역할을 한다(Snyder, 1994; Snyder, Cheavens, & Simpson, 1997). 목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의식사고를 점유할 만한 충분한 가치와 함께, 그 성취에 있어서 적절한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Averill, Catlin, & Chon, 1990). 주도요인은 목표를 이뤄 가는데 있어서 그려지는 경로를 따라 사람들이 추진해 가도록 만드는 동기부여적 요소이다. 다시 말해 동기와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그 사람의 인식(“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이자 인내로 그 목표를 지향해가는 정신적 의지력(willpower)과 같은 것이다. 경로요인은 목표를 추구해 가는 과정으로 장벽과 좌절을 직면해도 선택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 내는(“나는 이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사고능력이다(waypower).

이 흐름을 도식으로 정리하면 [  $\longrightarrow$  A  $\longrightarrow$  B ] 로 여기서 A는 주도요인과 경로요인을 가진 소망의 사람을 말하고, 주도적 동기를 상징하는 굵은 화살표가 바라는 목표(B)를 추구하도록 그에게 영향을 끼친다. A는 B라는 목표에 이르는 경로(얇은 화살표)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가진다(Polly & Britton, 2018; Snyder, 2000). 이들이 소망에 대해서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의지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로 이해한 것은 소망적 태도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Polly & Britton, 2018). 즉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부재한지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가능해 진다. 삶에 목표가 없는 사람, 목표는 있지만 그것을 실현해갈 동기, 의지, 자신감이 없는 사람, 그리고 목표와 의지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그 과정은 어떠한지, 혹은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헤쳐 가야할지, 돌아가야 할지, 다른 길을 택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각 각의 경우가 소망으로 회복을 시도하는 상담적 개입에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소망이론은 상담으로 적용돼서 소망을 산출하는 네 가지 핵심전략을 말하고 있다(Lopez et al., 2004). 첫째, ‘소망 발견하기’로 내담자 안에 있는 소망을 찾아내는 것과 지금 받고 있는 상담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둘째, ‘소망으로 단단히 연결하기’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켜 소망을 주는 근본적인 치료동맹을 만들어 내는데 중점을 둔다. 셋째, ‘소망 확대하기’에서는 내담자가 목표를 설정할 뿐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한 경로를 계획하도록 돕는 것이다. 내담자가 부정적인 것에 고착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넷째, ‘소망 상기하기’는 목표를 이뤄 가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생각을 가려내고, 소망의 생각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지속하도록 개입하고 배운 것을 활용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일반적 소망연구의 또 하나의 주제는 어떤 사람이 소망을 가지는가, 소망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그것을 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Erikson(1964: 115)은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통해 유아의 주요한 발달적 자아과제가 신뢰·불신의 역동을 다루는 것이라고 했다. 그 과제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라는 “가장 초창기의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를 갖게 되면서 소망이 산출된다고 말한다. 소망의 뿌리를 찾는 연구 역시 이 부분에 집중하여 안전지

대를 만들어 주는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를 살폈고, 상호관계에서의 응집성, 일관성, 경계선 등이 소망을 심어주는 것으로 정리한다(Shorey et al., 2003; Snyder et al., 2002).

건강한 관계 경험은 신뢰(Hargrave & Pfitzer, 2011)에 기초한 안전의 인식을 통해 안전지대를 내면화하게 한다. 이 바탕 위에 그 사람은 세상을 탐색하고 목표를 가질 뿐 아니라 감히 그것을 추구하는 행동을 도전해보게 한다. 이 주제에 대한 이어지는 연구에는 애착이론과 대상관계나 자기심리학이 소망의 기원, 발전, 회복과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다. Herth의 모델(2001)은 Snyder의 이론에 애착이론을 추가하여 세 영역으로 구성한다. ‘인지·시간적 영역(cognitive-temporal domain)’은 주도요인 사고와 유사하다. ‘정서·행동적 영역(affective-behavioural domain)’은 경로요인 사고와 내용을 공유한다. 반면에 ‘친화·정황적 영역(affiliative-contextual domain)’은 애착과 소속에 근거하여 소망을 회복하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삶에 함께 하는 사람과 과거와 미래의 친구와 가족과 같은 사회적 지원과 함께 영적 지원을 통해 애착과 소속을 경험하고 소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Snyder의 소망이론의 한계로 지적되는 점은 그가 말하는 소망이 개념적으로 다른 심리적 구성요소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 없다는 것과 영성과 같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 소망을 품게 하는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는 것이다(Bruininks & Malle, 2005; Rand & Cheavens, 2009; Scioli et al., 2011). Snyder(2000: 13-16) 스스로가 자신의 소망이론과 Seligman의 낙관주의, Scheier와 Carever의 낙관주의, Bandura의 자기효능성, 자존감이론, 문제해결이론, 행동패턴이론을 비교분석하였다. 인지적 측면과 목표지향적 생각, 주도요인과 경로요인이라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았을 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Scheier & Carever의 낙관주의와 자기효능성이 자신의 이론과 유사하다는 점을 밝

하고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이나 인지대처능력 역시 좌절을 경험한 후에도 인지와 동기에 있어서 소망을 붙잡는 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소망이론과 관련되어 있다.

소망은 인간의 삶이 있는 이어지는 동안 어느 시기, 어느 곳에서든 붙잡아 왔던 개념이었고, 이것을 하나의 학문적 내용으로 정리하려는 시도가 있다. 무력한 자신을 인식하며 근본적으로 자기 밖의 초월적 세계를 포함하는 어떤 힘과 연결하며 삶을 바라보려는 접근이다(Fredrickson, 2013). 여기에는 철학에 근거해서 개진한 입장(Marcel, 2010), 영성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한 입장(Scioli et al., 2011), 그리고 전통적이고 본질적인 종교적 입장(Pruyser, 1986)이 있다. 전반적으로 이들은 소망을 심화내지 강화시켜 주는 의미 찾기와 초월성을 강조한다. 이런 흐름이 심리학 내에서는 초월심리나 긍정심리로 발전하는데, 특히 긍정심리학은 소망을 영성과 초월성의 미덕 내에 하나의 성격강점으로 구분하여 철학, 종교와 심리학을 실증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고 시대와 문화를 검토하며 철학, 종교와 사상에서 검증된 중요한 핵심가치를 찾는 가운데 소망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이다(Peterson & Seligman, 2004). 초월성의 영역 아래 소망을 둔 이유는 인간의 지식과 대처 능력을 넘어선다는 점, 의미, 목적 그리고 근본적인 믿음을 제공하는 점, 그리고 소망이 가능한 것이 인간을 넘어서는 더 큰 어떤 것과의 연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연구의 주장자들의 실증적 연구 결과는 소망, 삶의 만족, 심리적 웰빙이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Hasson-Ohayon et al., 2009; Plante & Boccaccini, 1997).

일반상담 내의 소망이론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Carol J. Farran, Kaye A. Herth 그리고 Judith M. Popovich(1995)가 분류한 구분이 유용하다. 이들은 소망을 합리적 생각과정, 관계적 과정, 경험적 과정, 영적 또는 초월적 과정으로 묘사한다. 합리적 생각과정으로서의 소망은 심리학 연

구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그 특성 상 측정과 평가에 있어서 용이하고 실제적이다. 이들의 소망에 대한 이해가 가진 핵심적인 측면은 조절능력의 제공이다. 인생에 밀어 닳치는 여러 사건과 사고를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조절할 수 있다. 인지·행동적 상담자들은 소망의 이러한 측면을 실행하게 하며 현실적인 목표를 향한 준비와 성취 과정을 돕는다. 관계적 과정으로서의 소망은 가족, 친구, 돌보는 자들이 소망의 발생과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애착과 소속, 안전지대와 소망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한다. 경험적 과정으로서의 소망은 고난, 질병, 그리고 죽음의 정황에서 소망이 고개를 드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고난은 소망에 대한 가장 커다란 도전이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고난으로 인해서 소망은 시작된다. 소망에 관한 현대 철학과 신학이 홀로코스트(Holocaust)에서 부상했고, 소망은 암과 같은 중한 병과 관련해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영적 또는 초월적 과정으로서의 소망은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는 실제 과정에서 기도, 명상, 그리고 심상화와 같은 영적 자원을 활용하고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 영성, 종교, 초월심리, 긍정심리라는 이름으로 돌봄과 상담현장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 2. 기독교와 소망

초창기 신학 정립에 기여했던 Thomas Aquinas(Dal Sasso & Goggi, 2004: 235)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소망은 덕이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도움과 더불어 획득되어야 할 미래지향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가능한 선(善)이신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갖는다”. Aquinas는 소망은 어려운 여정이지만 미래의 선을 결과로 낳게 하는데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그가 소망에 대해서 그 과정에 함께 하는 하나님의 도움(경로의 이해)에 의해서 달성 가능한 성취적 목표(가

능한 선)라고 본 것은 현대의 심리치료에서 말하는 소망이론과 그 흐름에서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Edwards & Jovanovski, 2016). 또한 기독교는 소망을 믿음과 사랑과 함께 신학적 덕에 속한 것으로 이해했다.<sup>2)</sup> 기독교 윤리학자 Stanley Hauerwas(2019: 106)는 “덕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데 있어서 필요한 습관”이라고 설명하며 인간은 소망 없이는 삶의 내용만이 아니고 삶 자체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기독교의 소망은 낙관주의나 환상도 아니고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망상도 아닐 뿐 아니라, 일반적인 소망이론이 담지 못하는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Marva J. Dawn(2003: xii)은 현대 문명사회를 분석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은 ‘족쇄(fettering)’에 매여 있다고 표현한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망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망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억눌리거나 찌그러질 수 있고,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에 대한 바람은 막혀지거나 손상될 수 있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갈망은 좌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한 기대는 실망하거나 환멸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삼위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 이런 족쇄에 매인 세상을 풀어주고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특별한 능력이 됨을 통찰한다.

### 1) 성경에서의 소망

성경에서 소망(ἐλπίς)은 기대(expectation)와 전망(prospect)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삼상 18:25, 욥 13:3; 행 27:20; 고후 1:67). 예를 들면 농부는 노동을 달래주는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받을 간다(고전 9:10)(Tasker, 1982).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

2) 자연적 덕에 속하는 사추덕(四樞德)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이고 다른 덕이 여기에 의존하고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한 필수 덕이라고 한다.

망은 문맥과 내용 상 두드러진 차이를 가지고 있다(Arndt & Gingrich, 1979).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 한 삼위하나님이 주도하는 소망이다(행 23:6; 24:15; 롬 4:18, 5:4, 8:20, 12:12, 15:4, 15:13; 고전 13:13; 고후 3:12; 엡 1:18, 4:4; 빌 1:20; 골 1:27; 살후 2:16; 딤후 1:2, 3:7; 히 3:6, 6:11, 7:19, 10:23; 벧전 1:3, 21, 3:15). 바울은 이방인들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라고 말하며(엡 2:12), 약속에 속하지도 않았고 소망도 없는 이들이라고 말한다(살전 4:13).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은 그 근원과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다(최갑중, 2016).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주도하시는 약속으로 소망은 시작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약속이고, 이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취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완성되어진다. 성령 하나님은 신자로 하여금 이 약속의 선물을 알고 그 완성을 소망하게 하며 친히 그들 안에서 성취를 이루어 간다(롬 5:5, 15:13).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롬 5:5)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배반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고전 1:27; 고후 7:14, 9:4)이다(Moo, 2000). 환난에서도 인내하며 견디면서 연단 가운데 소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 사람을 하나님이 배반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 기독교의 소망은 삼위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기에 반드시 이뤄지며, 그 소망 위에서 확신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둘째, 성경이 소망을 언급할 때 그 기대하고 바라는 대상은 하나님(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 분이 허락한 것들이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딤후 1:1)이라고 한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한다(골 1:27). 특히 구약은 절망과 타락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의 소망 자체로 여호와를 갈망하고, 소망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소망한다(시 33:20, 38:15, 39:7, 40:1, 42:5, 11, 62:5, 63:1, 71:5, 78:7, 119:116, 130:7, 131:3; 사 8:17; 렘 14:8, 50:7; 애 3:18, 24, 26; 호 2:15; 미 7:7). 이사야 역시 이방인들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다(사 42:4; 마 12:21). 이것이 신약에도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기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대망하는 이들이 있었다(눅 2:28-38). 신약시대와 그 이후에는 결국은 성취되는 소망의 대상, 즉 내용이 구체화된다. 구원(롬 8:24), 하나님 나라(롬 8:23-24; 딤후 2:13; 벧전 1:13), 하늘에 쌓아둔 것(골 1:5), 복스러운 소망(고후 1:10; 딤후 2:13), 미래의 영광(골 1:27), 기업(히 6:18) 등을 말하고 있다.

기독교의 소망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또는 타인의 도움에 달려 있지 않다. 기질의 강점도 아니고 주변 환경이나 어떤 인간적 기능에 의해서 조건화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고 개입하시며, 약속을 맺으시고 실행하는 삼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소망이다. 그리고 소망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소망에 대한 성경의 진술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구원과 그로 말미암은 영원(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이 땅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죽음의 한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극복되었다. 이것은 성경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신약인들이 모두 확인하는 역사 속에 실현 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행함이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모든 비참한 상태와 당황

스러운 절망, 그리고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에서 구원받는다(고전 15:19).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 받아 영원한 삶과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된다. 확보된 영원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기다리고 가야할 그 곳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영원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전 3:11)을 주셨고, 실제로 소망하게 된 영원에 대한 소식은 세상과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엄청난 선언이고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다.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신비로운 인생관과 시간관이 주는 유익이 많다.

그러나 Paul Tripp(2012: 24)은 현대인들(일부의 신자를 포함해서)을 진단하며, 그들이 “영원을 절도 당했고 영원 망각증에 빠졌다”고 표현한다. 이것은 마치 인생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조각을 잃어버린 채로 그림 조각 맞추기를 하는 것과 같다. 영원이란 조각이 빠진 바람에 전체 그림을 정확히 알 수가 없게 되었다. 진정한 삶, 원래 우리가 살아가 할 삶은 영원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설계하셨다. Tripp(2012: 31)은 이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스팔트 위의 모터보트와 나무의 물고기라는 두 가지 은유를 들고 있다. 도로에서 모터보트를 모는 사람은 없다. 모터보트가 아무리 최첨단 장비로 장착했다 해도 아스팔트를 가르며 달리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무 위에서 쉬고 있는 물고기 역시 없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본래의 설계에 따라 작동하고 살아가야 잘 살게 된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 설계되었기에,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만 인생이 설계대로 돌아간다. 영원을 망각한 사람은 찾고 돌아가야 할 영원을 까마득히 잊은 채 나무 위의 물고기처럼 도무지 살 수 없는 현실에서 진정한 삶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또한 영원한 세상에서나 가능한 것을 지금 당장 가지려고 한다. 사람과 소유로 공허함을 달래려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그것

이 안 되면 실망하고 화를 낸다. 이 세상을 최종 종착역으로 여기고 당장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에 실망하고 낙심한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잘 사는 삶이란 영원의 조각을 가지고 퍼즐을 맞춰가야 진정으로 살아진다.

성경이 영원을 표현하는 또 다른 용어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출범했고, 그 나라가 결국에는 종말에 완성되지만, 동시에 지금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도래하여 시작되었다 (Ridderbos, 2009).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약속이요 소망만이 아니고 이미 여기서 시작되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현재의 은혜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영원의 하나님이 인간의 이야기 속에 들어오시고 이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면서 영원의 현재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여기에 일조한 표현 중의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번역한 것이다(김형국, 2017)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로 표현된 것이 마태 복음에는 Kingdom of Heaven(마 3:2)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저자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경외감을 가지며 직접 그 단어를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나라'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중국어 번역을 따라 천국이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천국이라는 말이 오랫동안 한국인의 민간신앙에 뿌리 박혀 있는 천당이라는 토속적 개념과 겹친다. 결국 죽으면 가는 천당과 천국을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미래적 장소로만 이해한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석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맛을 보게 하려는 것이었다(김세운, 2013). 회개한 죄인들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고 그

첫 맛을 보게 하며 소망을 활성화시켜 주신 것이다. 소망까지도 포기할 정도의 고난이 인생을 무겁게 짓누른다. 주의 재림 때 곧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이러한 죄와 죽음과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신자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 즉 영생을 소망한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고 평안을 누리는 소망의 혜택을 맞본다. 영원에 대한 소망은 미래의 것 만이 아니고 당장 힘든 순간을 버티게 하는 현재의 소망이기도 하다.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영원의 소망은 우리의 인생이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선한 하나님의 손안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한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으면서 세상만사의 의미가 달라지고 절망과 무기력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

벧전 1: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도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한다. 고난을 경험하는 독자에게 베드로는 다가올 영원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유산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 후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한다. 보호하심이란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이 현재 속에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뜻이다(박수암, 2019). 영원이 실재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가 본향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현재의 고난을 무사히 넘어 영원한 본향까지 안전하게 이를 것이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 보호하시며, 용기와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다 원망과 의심, 두려움, 공포, 혼란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산소망으로 살아간다. 성경은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고 투구와 같아서 우리가 써야 할 것으로 말한다(살전 5:8). 투구는 죄와 악과 대항하여 싸우는 중에 갖추어야 할 갑옷의 핵심적 부분이다. 일시적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고(히

13:14), 삶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받으며(요일 3:2-3) 그로 하여금 기쁨으로 고난을 경험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소망이 인내와 같이 간다는 점을 강조한다(살전 1:3; 롬 5:3-5).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견디며 영원의 세계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소망은 견고한 영혼의 닻과 같다(히 6:19).

둘째, 진정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그 근원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정갑신, 2019)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면, 그 분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고 소망을 넘치게 한다(롬 15:13). 그 믿음으로 인해 신자는 그가 소망하는 것들이 현실이 될 것을 확신하고(히 11:1) 이러한 소망은 그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롬 5:5). 주목할 것은 소망이 믿음 만큼이나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의 조합이 살전 1:3, 5:8; 갈 5:6-7; 고전 13:13; 히 6:10-12; 벧전 1:21-22에서 발견된다. 소망이 사랑과 연결되면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된다(Tasker, 1982). 신자는 자기만의 복을 소망하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의 수여자가 될 것을 소망한다. 바울은 도망했던 중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서 돌려보내고 그를 받아주기를 간청하며 그가 가진 사랑과 믿음과 함께 소망에 호소하고 있다(몬 1:7, 15). 소망은 믿음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고 사랑은 소망 없이 연습될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함께 하며 지금 여기에서의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을 구성한다.

### 3. 기독교상담에서의 소망

기독교 실천영역 분야인 목회상담학이 소망을 상담 현장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지속해 왔다. Andrew D. Lester는 실존주의 철학과

조직신학의 근거 위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돌봄의 내용에서 이론과 실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Lester, 1995). 이론화의 과정에서 소망이 추상관념에 머물러 있으면 안되고 실존의 삶에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현실의 본질은 이미 되어진 것이 아닌 개방된 미래에 달려 있다. 이것은 아직의 현존이다. . . 진정한 실재는 과거가 부여한 현실을 수용하고 현재가 제공하는 자유 가운데 살아가며, 미래가 제시하는 가능성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다”(Lester, 1995: 19-22). ‘아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신체적, 정서적, 영적 웰빙에 결정적이다. 소망을 적용한 상담적 기법으로 미래 이야기에 초점을 둔 스토리텔링, 심상작업, 마치(as if) 대화 등을 도입한다. 사상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과 탈구조주의이론에 기초하고 신학적으로 Moltman의 종말론<sup>3)</sup>에 근거하고 있으며 심리치료에 대한 통합의 원리 역시 모호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Howard W. Stone 역시 심리학자이자 목회상담자로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영역에서 인간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미래시제를 간과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새로운 미래를 소망하게 돕는 방법은 우선 적절한 질문을 통해 미래의 이야기에 마음을 모으도록 돕는 것으로 시작한다(Stone & Lester, 2001). 그리고 소망을 재구성한다. 구성한다는 것은 사건과 환경에 대한 인식 방식으로 이것이 삶의 실재를 형성한다. 재구성은 그 인식을 변하게 하는 것으로 기억과 경험을 다시 이해하고 무거운 짐이나 약점을 강점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의미가 바뀌면서 같은 환경이라도 다른 감정, 생각,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재구성하도록 하게 된다. 이 밖에도

3) Jürgen Moltman의 소망의 신학은 여러모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으나, 인류의 미래와 구원과 관련한 그의 만유구원론 입장에 대한 평가와 분별없이 실천신학의 기초로 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문제없는 미래를 마음에 그리기, 미래적 목표를 설정하기, 기적질문을 통해 미래 그려보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Stone, 1998).

Donald Capps(1995: 2-5)는 목회상담자는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와는 다른 독특한 자원인 소망이 있고, 이것을 활용하는 나름의 상담언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다. 종말론의 큰 틀에서 소망을 보는 가운데 시간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고 지금·여기에서 소망의 태도를 형성하고 지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소망들을 갖게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그들에게 현실화되는 것을 발견하도록 돕는데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Capps, 1985). 시간의 재구성을 위해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미래의 관점을 취하는 ‘미래 그려보기’와 현재의 태도와 미래에 대한 의지에 비추어 과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거 개정하기’를 제안한다. 소망의 기원과 성격이 폭넓게 연구되고 있고 소망을 위협하는 절망, 무관심, 수치의 주제와 함께 소망을 돕는 협력요소로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신뢰, 소망을 지탱하게 하는 인내, 그리고 회피 없이 현실을 정직하게 수용하는 겸손을 이야기한다.

심리학자인 Everett Worthington은 기독교적 자원인 용서와 소망을 부부상담에 적용해서 소망중심의 부부상담 전략인 HFCA(hope-focused couple approach)를 개발했다.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대부분의 부부는 낙담하고 더 이상 소망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소망을 불러 넣어주는 것이 상담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소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갈 5:6)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설득한다(Worthington, 2003).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가지고 있어야 하고 현재에는 소통, 갈등 해결, 친밀함, 그리고 현신의 기술이 그리고 과거에 기인한 상처와 아픔, 그리고 죄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용서는 부부관계를 풀어주는 또 다른 핵심적 부분이라고

말한다.

성경적 상담학자인 Wayne A. Mack(2005: 219-220)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나 성화의 과정을 지속하려는 사람이나 모두 소망이 필요하다고 전제한다. 우선 잘못된 소망과 진정한 소망을 성경적 입장에서 구별하고 소망을 심화시키는 세분한다. 그 중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성장하도록 돕는 것, 성경적으로 생각하도록 돕는 것, 소망에 관한 신앙적 예를 제공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한국 내의 소망과 관련한 기독교 내의 연구는 회복탄력성, 긍정심리, 해결중심치료 등과 관련한 통합적 연구가 있었다. 소망 자체의 주제에 초점을 모은 근래의 접근으로 이정원은 박사학위 논문의 논지를 살려 좌절이나 절망에 처한 군 부적응자들에게 희망을 불러넣는 목회적 돌봄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이정원, 2014). 김수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희망의 본질을 다시 갖게 하는 회복탄력성의 공동체를 제시했고(김수영, 2017), 또 다른 논문에서는 용서가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연결됨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용서와 자기 내어줌, 포용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돕는 목회 상담을 제안한다(김수영, 2019). 전요섭은 은혜의 방편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자원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소망을 제시하며,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 이해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상담을 소개하고 있다(전요섭, 2018). 이상과 같은 일반상담과 기독교상담 내의 소망 활용의 내용에 근거해서 상담 과정 내에 활용 가능한 소망 중심의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 1) 소망 대화하기

내담자가 소망을 가졌던 적이 있는지, 현재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이고 혹 왜곡된 기대나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대화의 주제로 이끌면서 소망이 상담의 가시적, 암시적 전제와 주제

가 되도록 이끈다. 성경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벧전 3:15)하라고 말하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인간의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이지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고 소망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Steven J. Sandage와 F. LeRon Shults (2006: 191-192)는 “개인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하는 성품과 같은 인간적 강점은... 종종 스트레스와 고난의 사이클을 통해 발달한다”라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첫째, 소망을 발견하거나 심고 되새기고 발전시키는 모든 과정의 출발은 상담자의 소망을 품은 태도에서 시작한다. John D. Jones(2004: 33-34)는 예수님의 관계방식을 소망과 관련하여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이 상처 입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회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차이였고 더 나아가 소망적 태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세리, 죄인,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등, 어떤 계층의 사람 무슨 질병이나 어떤 고난에 처했던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셨다. Jones(2004: 33)는 George Whitefield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심지어 ‘악마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소망을 가지셨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과 그 속의 죄와 동기를 모두 아는데도, 아니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셨다. 이것은 기독교 상담자 자신의 소망의 정도와 상담과정에서 소망을 견지하는 능력으로 적용된다. 상담자의 소망 수준이 내담자에게 전달되고, 높은 소망을 가진 상담자가 변화에 조금 더 기여하는 것은 임상적으로도 강조되고 있다(Snyder, 1995).

둘째, 소망의 대화를 이끄는 질문과 이야기를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한 상담기법적 개입 기술은 해결중심치료나 이야기치료 등에서 논의된다. 해결중심단기치료의 학자인 Bill O’Hanlon(2015: 168-173)은 소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선 가능성과 긍정적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sup>4)</sup> Insoo K. Berg와 Therese Steiner(2009: 58-60)는 기적질문 등과 같은 실제적 개입으로 해결 상황을 상상하게 하며 변화가능성에 대한 소망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Larsen 외(2007)는 소망과 관련한 대화는 상담 초기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소망에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 일련의 질문들을 정리했다.<sup>5)</sup> “당신이 보기에 저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 같다고 생각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침대 옆에 소망을 상징하는 사진을 놓는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노래, 색깔, 냄새

---

4) 이것을 방법 1로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문제가 아닌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긍정적 기대를 이야기하는 법을 제시한다. 방법 2는 “마음을 사로잡는 미래를 떠올리기”로 이를 위해서는 “1단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아라, 2단계: 떠올린 미래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해결하라, 3단계: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행동계획을 세워라”라고 한다.

5) Polly와 Britton(2018: 310-311)은 이러나 질문에 대한 조금 더 내실있는 대화를 이어가게 하는 소망을 키우는 위한 12가지 방법을 언급하는데 과제나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나 자신이나 가까운 누군가가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했던 상황을 떠올려 본다. ② 1년, 5년, 10년 후 내가 어디서 어떤 사람이 돼 있기를 바라는지 그려보고 그렇게 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③ 내가 잘못 내렸던 결정을 떠올려 본 후 나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과거의 실수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기 보다는 거기서 교훈을 얻는다. ④ 역경을 처했을 때 과거 그와 비슷한 일을 극복했던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앞으로도 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⑤ 낙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친구들과 어울리고 특히 역경에 처했을 때 그들의 격려와 도움을 받아들인다. 그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는 그들에게 힘이 돼주겠다고 말한다. ⑥ 전날 있었던 나쁜 일을 모두 적어보고 거기서 긍정적 측면을 각 각 최소 두 가지씩 찾아본다. ⑦ 긍정적인 사고 양식과 부정적인 사고양식을 모두 적어보고 그에 따라 향후 나의 실적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 본다.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 실적이 개선되는지 실험해 본다. ⑧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내게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본다. ⑨ 향후의 고난을 예상해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기 보다는 헤쳐 나가면서 시야를 넓힌다. ⑩ 향후의 세 가지 어려운 과제 가운데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보고 올바른 행동을 생각해 실천한다. ⑪ 과거의 세 가지 성취를 상세하게 적어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는다. 그 기록을 책상 서랍처럼 주로 어려운 문제가 들어 있는 곳에 보관해 둔다. ⑫ 일주일 두 번, 적어도 15분씩 낙관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한 생각과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행동 방안을 적어보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

등으로 지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에서 소망했던 것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 보다 더 좋게 이뤄졌던 일이나 그런 시기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실현되었던 소망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현실의 삶에서 소망에 초점을 모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당신이 얼마만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1에서 10이라는 숫자로 정한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언어를 통한 소통이 여의치 않다거나 대화가 이어지기가 어려운 내담자를 위해서 ‘소망콜라주’ 같은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는 이미지를 찾아보는 활동을 한다.

## 2)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하기

소망 중심적 상담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과제이자 내용은 흔들리거나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내담자가 경험하고 견고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Allen, 2013). 앞선 연구를 통해서 신뢰관계와 그로 인해 형성한 안전의 인식이 소망을 가져온다는 점을 확인했다. Ernst(2017: 205)는 애착유형과 관련한 몇 가지 소망 유형을 분석하며 복합적 소망을 제안한다. 불안회피 애착유형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 소망을 가지고 하고 불안양가 애착유형은 도피하는 종말론적 소망, 무질서한 애착유형은 소망을 갖는 것이 어려워진다. 반면에 안전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자기가치와 자기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타인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복합적 소망을 산출한다. 타인,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애착대상에게서 위로와 안전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고난에서 비난이나 수치가 아닌 소망으로 반응한다고 분석한다.

신앙인에게 신뢰와 안전의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토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 내밀어 주심이다. 성경은 강력하고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과의 관계, 다시 말해 애착을 결코 깨지 않는다는 것을 예증하고 있다(Edwards & Jovanovski, 2016). 성육신과 성령의 내주에 대한 성경의 진술은 모호하거나 멀리 있는 듯 여겨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중요한 본질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분을 잘 알고 교제하도록 친히 탄식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에 오셨다. 실망과 낙심이 밀려오는 생의 한복판에서 그 형편을 경험하고 아는 분이 친히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한다. 외로움의 현장에서 버리지 않을 친구로 내 곁에 머문다. 죽음을 넘나드는 그 때에도 그 분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영원이 시간 속으로 들어왔고, 주님의 동행과 능력이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영원의 평안과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주님을 만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소망을 낳게 한다(Moody, 2004). 성경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하는 소망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 속성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만남이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못할 수 있다. 상담자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분 안에서의 안전이 느껴지지 못하는 내담자와 작업해야 한다. 이를 위한 상담자의 개입 중에 하나는 첫째, 이미 상담실제에 있어서 내담자 변화에 기여하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와 치료동맹을 주의 깊게 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Flückiger et al. 2012; Horvath et al. 2011). April B. Brewer(2016: 16)는 내담자가 건강한 애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와 안전피난처를 제공하는 치료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결국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연구했다. 상담자와 내담자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소망을 돕는 치료관계의 10가지 주제는 “공명(동조), 공감과 이해, 무조건적인 긍정

적 존중, 소망 없는 현실에 증인이 되기, 관계적으로 연결되기, 돌봄을 나타내기, 내담자의 동맹을 맺기, 진실성, 존경을 소통하기 영적으로 연결되기”이다. 더불어 계슈탈트의 빈의자 대화, 심상기법, 교류분석의 “재양육경험(reparenting)” 등의 과거와 현재의 관계적 만남을 촉진하는 개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이어주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만이 아니고 현재 더 나아가 늘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둘째, 공동체는 신뢰와 안전을 낳고 기르게 하는 강력한 현장이다. 소망이 강한 사람은 좋을 때나 나쁠 때 의지하는 사회적 지지망을 가지고 있다(Snyder, 1994). 반대로 소속과 지지를 갖지 못한 환경은 우울증을 악화시키고 절망을 가속화시킨다(Bolt & Dunn, 2017). Irvin Yalom (1995: 1-2)은 집단상담의 10 가지 치유요소를 말하면서 첫 번째가 ‘소망의 주입’ 이고 마지막이 의미와 목적과 같은 ‘실존적 요소’ 라고 말한다. 앞에서 소망 키우기를 위해 상담자에 의해서 구성된 질문이 집단 구성원 상호 간에 이뤄질 수 있으며 조금 더 역동적이고 신속한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사람들은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 연결되고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다. 혼자서는 소망을 키울 수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 교회의 역사는 이웃과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으며 소망을 품은 법을 배워서 세상을 감당했던 수 없는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일은 우리에게도 이어진다.

### 3) 약속 확인하고 구현하기

Jerome Groopman(2005: 28-54)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소망이 현실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서 거짓된 소망이 되거나, 일말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라는 명제 아래 삶을 온통 포기하게 하는 제한된 소망이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진실된 소망은 실제적이고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인식될 때 가능하다고 표현한다. 설득이 되는 통찰이지만 기독교의 자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별히 '현실적'이라는 표현 때문이다. 성경이 제시하는 약속은 풍성하지만 과연 그것을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현실에 기초를 두지 않은 거짓된 소망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Mack(2005: 231)은 성경적으로 선한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에 바탕을 둘 뿐 아니라 큰 그림(영원의 시간과 우주의 공간)으로 봐야하고 이것이 분명해질 때, 어떤 것보다 현실적인 것이 성경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며 그의 소망은 그 자신의 능력에 대한 비현실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상담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사람들의 소망의 목록과 소망하는 이유를 검토하는 것이 제안된다(McDemott & Snyder, 1999).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망을 점검하고 키우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은 목표를 잡는 것이다. 소망을 높게 가진 사람은 낮게 가진 사람보다 스스로에게 더 어렵고 더 많은 목표를 설정한다(Snyder et al., 1991). 그들은 경력, 관계, 여가를 포함하는 삶의 영역 각각에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그 목표는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그것을 자신과 타인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대해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전략(Bolt & Dunn, 2017)으로 제시되는 삶의 주요영역(일, 가족, 건강, 취미)에 신앙(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관계(사람)를 추가한다(표 1). 각 영역별로 중요한 목표의 목록을 만들고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영역 모두에 걸쳐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찾아본다. 목록을 작성하면 한 주 동안 묵상하고 다시 꺼내본 후 적절하게 목표를 더하거나 뺀다. 각 영역의 목록과 그 내용을 늘려 나

간다. 소망은 신앙생활 만이 아니고 삶의 각 영역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목표를 가지게 될 때 더욱 강화된다. 각 영역에 목표를 확정한 후에 우선순위를 정한다.

〈표 1〉 소망(하나님의 약속) 목록

순위	신앙	관계	가족	일	건강	취미

이러한 목표를 도달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며 Bolt와 Dunn(2017: 241-242)은 부정적 내면대화의 점검, 목표와 관련한 사고일지 쓰기, 성공을 시각화하고 실천하기, 낙관주의 학습하기 등을 제안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 주어진 것으로 믿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미래에 성취되는 것일 뿐 아니라, 지금부터 이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Worthington(1999: 31)은 소망은 “하나님이 비록 그러한 환경을 우회할 길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신앙인이 소망을 이뤄가는 결정적 경로요인은 하나님이다. Hauerwas(2019: 109)는 소망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 훈련에서 “언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삶을 빚어내야 할 소망이 참된 이야기로 정해져야 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바른 것을 바르게 원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말한다.

또한 이 과정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풍요롭게 하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 예전이다(Ramsay, 2019). 성례는 나눔의 행위를 통해 친밀함과 위로를 배가시키고 무엇 보다 고난, 죽음, 생명의 의미를 찾

게 하고 소망해야할 것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허락한다. 주기적으로 드러지는 예배는 소망이 흐트러지고 캄캄한 절망이 다가왔을 때,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에 마음을 모으도록 돕는다. 예배의 장소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포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붙잡아 주는 신비로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장이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가 수치와 죄책을 해결하는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슬픔과 즐거움, 분노와 탄식을 표현하도록 허락하며 소망의 여정을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 된다.

### III. 닫는 글

우리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결핍의 존재이다. 그래서 불안, 불의, 갈등, 억압, 질병, 결국은 죽음을 만나게 되고 빠져나와 보려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포기만 늘어나는 현실을 경험한다. 이 아픔이 지속되어 왔지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뭔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을 찾으려고 애써왔고 지금도 찾고 있다. 논문은 이 질문에 일반상담은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이들이 제시하는 이론의 내용을 정리했다. 인간의 의지, 인지, 행동, 감정을 중심으로 목적을 만들어 내고 그 목적을 이루는 구체적 과정이 분석된다. 기독교상담은 인간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자원의 근거에서 독특하고 소망에 있어서도 중요한 해법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한계와 그것에서 기인한 고난과 험악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분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의 재림 때 곧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죄와 죽음의 고난으로부터 해방된다.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 즉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기대하고 바라봐야 하는 소망이다. 이 미래시제의 일이 과거와 현재

를 바꾼 다는 것이 신앙의 역설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현실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감사와 기도로 견뎌 내게 한다. 사고를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상처를 입어도 치유자가 되어 주어진 삶의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한다. 이러한 소중한 진리를 소망을 중심에 두고 풀어가기 위한 다양한 자원과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분별했다. 소망 이야기를 하는 만남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야하고, 이를 위해서 상담자와 상담기술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 관계를 통해 소망은 산출되고 세워져 간다. 상담 관계에서의 신뢰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기술과 자원을 찾으며,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약속 확인하고 구현하기에서는 신앙생활만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그것을 소망으로 이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절박한 상황에서 포기를 생각하는 안타까운 형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으로 회복되는 일이 풍성해 지기를 기원한다.

【 참고문헌 】

- 김세운 (2013). *하나님 나라 복음 :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서울: 새물결플러스.
- 김수영 (2017). 절망하고 저항하며, 다시 희망하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을 위한 돌봄의 목회 연구. *목회와 상담*, 28, 40-66.
- 김수영 (2019). 불의한 세상에서 용서를 희망하기. *목회와 상담*, 32, 9-37.
- 김형국 (2017).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방식*. 파주: 비아토르.
- 박수암 (2019). 신약성경에 나타난 소망. *그말씀*, 2019(1), 181-197.
- 이정원 (2014). 군부적응자를 위한 희망의 목회적 돌봄. *목회와 상담*, 23, 117-143.
- 전요섭 (2018). *은혜의 방편을 활용한 기독교상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정갑신 (2019). 소망의 시작. *그말씀*, 2019(1), 102-114.
- Allen, J. (2013). Hope in human attachment and spiritual connection.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77(4), 302-331.
- Arndt, W. F., & Gingrich F. W. (1979).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 Averill, J. R., Catlin, G., & Chon, K. K. (1990). *Rules of hope*. New York: Springer.
- Barnett, M. (2014). Future orientation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the importance of hope. *Educational Gerontology*, 40(10), 745-755.
- Berg, I. K., & Steiner, T. (2009).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해결중심상담*(유재성, 장은진 역, *Children's solution work*). 서울: 학지사. (원전 2002 출판).
- Bolt, M., & Dunn, D. S. (2017). *긍정심리학: 인간강점의 실현*(김선주, 김정호 역, *Pursuing human strengths: A positive psychology guide*).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15 출판).
- Brewer, A. B. (2016). A Qualitative study on client's and therapists' perceptions of therapeutic interventions that foster hope(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e Fox University.
- Bruininks, P., & Malle, B. F. (2005). Distinguishing hope from optimism and related affective states. *Motivation and Emotion*, 29, 324-352.

- Capps, D. (1995). *Agents of Hope: A Pastoral Psychology*.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 Dal Sasso, G., & Goggi, R. (2004). 신학대전요약(이재룡, 이동익, 조금만 역, *Compendio della Somma Theologica*). 서울: 가톨릭대학출판부. (원전 1989 출판).
- Dawn, M. J. (2003). *Unfettered hope: A call to faithful living in an affluent societ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Edwards, T. M., & Jovanovski, A. (2016) Hope as a therapeutic target in counseling: In general and in relation to Christian client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38(2), 77–88.
- Erikson, E. H. (1964).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Y: W. W. Norton.
- Ernst, K. (2017). Terror of hope: The integration of attachment theory and womanist theology. *Pastoral Psychology*, 66, 201–212.
- Fredrickson, B. L. (1998).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300–319.
- Fredrickson, B. L. (2004).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59, 1367–1378.
- Fredrickson, B. L. (2013). Positive emotions broaden and buil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 1–53.
- Farran, C., Herth, K. A., & Popovich, J. M. (1995) *Hope and hopelessness critical clinical concepts*. Thousand Oaks, CA: SAGE.
- Flückiger, C., Del Re, A. C., Wampold, B. E., Symonds, D., & Horvath, A. O. (2012). How central is the alliance in psychotherapy? A multi level longitudinal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1), 10–17.
- Groopman, J. (2005). *The Anatomy of Hope*. New York: Random House.
- Hargrave, T. D., & Pfitzer, F. (2011). *Restoration therapy: Understanding and guiding healing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y*. NY: Routledge.
- Hasson-Ohayon, I., Braun, M., Galinsky, D., & Baider, L. (2009). Religiosity and hope: A path for women coping with a diagnosis of breast

- cancer. *Psychosomatics*, 50, 525–533.
- Hauerwas, S. (2019). *덕과 성품*(홍종락 역, *The Character of Virtue*). 서울: IVP. (원전 2018 출판).
- Herth, K. A. (2000). Enhancing hope in people with a first recurrence of cance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2, 1431–1441.
- Herth, K. A. (2001).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hope intervention program. *Oncology Nursing Forum*, 28, 1009–1017.
- Horvath, A. O., Del Re, A. C., Flückiger, C., & Symonds, D. (2011). Alliance in individual psychotherapy. *Psychotherapy*, 48(1), 9–16.
- Jones, J. D. (2004). 예수의 소망. Warren W. Wiersbe (편). *소망*, 31–45. 서울: 살림. (원전 1994 출판).
- Kinghorn, W. (2013). Hope that is seen is no hope at all: theological constructions of hope in psychotherapy.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77(4), 369–394.
- Larsen, D., Edey, W., & Lemay, L. (2007). Understanding the role of hope in counseling: exploring the intentional uses of hope.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20(4), 401–416.
- Lester, A. D. (1995). *Hope i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 Lopez, S. J., Snyder, C. R., Magyar-Moe, J., Edwards, L. M., Pedrotti, J. T., Janowski, K., & Pressgrove, C. (2004). Strategies for accentuating hope. In P. A. Linley & S. Joseph (Eds.), *Positive psychology in practice* (pp. 388–404).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Mack, W. A. (2005). 피상담자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편). *상담론: 어떻게 성경적으로 상담할 것인가*, 219–250.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2005 출판).
- Marcel, G. (2010). *Homo Viator: Introduction to the metaphysics of hope*. South Bend, IN: St. Augustines Press.
- McDemott, C., & Snyder, C. R. (1999). *Making hope happen: A workbook for turning possibilities into reality*. Oakland, CA: New Harbinger.
- Moo, D. J. (2000). *The New Application Commentary: Romans*. Grand Rapids, MI: Zondervan.
- Moody, D. L. (2004). *축복 받는 소망을 붙잡으라*. Warren W. Wiersbe (편).

- 소망, 77-96. 서울: 살림. (원전 1994 출판).
- O'Hara, D., & O'Hara, E. (2012). Towards a grounded theory of therapist hope. *Counselling Psychology Review*, 27(4), 42-55.
- O'Hanlon, B. (2015). *해결중심치료로 상처치유하기*(김보미 역, *Do one thing different*). 서울: 소울메이트. (원전 1999 출판).
- Olsman, E., Leget, C., Onwuteaka-Philipsen, B., & Willems, D. (2014). Should palliative care patients' hope be truthful, helpful or valuable? An interpretive synthesis of literature describing healthcare professionals' perspectives on hope of palliative care patients. *Palliative Medicine*, 28(1), 59-70.
- Peterson, C., & Seligman, M. E.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Plante, T. G., & Boccaccini, M. T. (1997). The Santa Clara strength of religious faith questionnaire. *Pastoral Psychology*, 45, 375-387.
- Polly, S. M., & Britton, K. (2018). *긍정심리학의 강점특권*(우문식, 이미정 역, *Character strengths matter how to live a full life*). 서울: 물푸레. (원전 2015 출판).
- Pruyser, P. W. (1986). Maintaining hope in adversity. *Pastoral Psychology*, 35, 120-131.
- Ramsay, N. J. (2019). Moral injury as loss and grief with attention to ritual resources for care, *Pastoral Psychology*, 68, 107-125.
- Rand, K., & Cheavens, J. (2009). Hope theory. In S. Lopez & C. R. Snyder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nd ed., pp. 323-333). NY: Oxford University Press.
- Ridderbos, H. N. (2009). *하나님 나라*(오광만 역, *Coming of the kingdom*). 서울: 솔로몬. (원전 1962 출판).
- Ripley, J. S., & Worthington, E. L. (2014). *Couple therapy: A new hope - focused approach*.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Sandage, S. J., & Shults, F. L. (2006). *Transforming spirituality integrating theology and psychology*.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 Scioli, A., Chamberlin, C., Samor, C., Lapointe, A., Campbell, T., & Macleod, A. (1997). A prospective study of hope, optimism, and health. *Psychological Reports*, 81, 723-733.

- Scioli, A., Ricci, M., Nyugen, T., & Scioli, E. (2011). Hope: Its nature and measure.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3, 78–97.
- Shorey, H. S., Snyder, C. R., Yang, X., & Lewin, M. R. (2003). The role of hope as a mediator in recollected parenting, adult attachment,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2(6), 685–715.
- Snyder, C. R., Irving, L. M., & Anderson, J. R. (1991). Hope and health. In C. R. Snyder & D. R. Forsyth (Eds.),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The health perspective* (pp. 285–305). Oxford, UK: Pergamon Press.
-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Yoshinobu, L., Gibb, J., Langelle, C., & Harney, P.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70–585.
- Snyder, C. 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Y: Free Press.
- Snyder, C. (1995). Conceptualizing, measuring, and nurturing hop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3), 355–360.
- Snyder, C. R., Cheavens, J., & Sympson, S. C. (1997). Hope: An individual motive for social commerce.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2), 107–118.
- Snyder, C. R. (2000). Hypothesis: There is hope. In C. R. Snyder (Ed.), *Handbook of hope: Theory, measures, and applications* (pp. 3–21).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nyder, C. R. (2000). Genesis: Birth and growth of hope. In C. R. Snyder (Ed.), *Handbook of hope: Theory, measures, and applications* (pp. 25–57).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nyder, C. R., Rand, K. L., & Sigmon, D. R. (2002). Hope theory: A member of the positive psychology famil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257–276).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nyder, C. R. (2002). Hope theory: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 249–275.

Stone, H. W. (1998). *Depression and hope: New insights for pastoral counseling*.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Stone, H. W., & Lester, A. (2001). Hope and possibility: Envisioning the future in pastoral conversation.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55(3), 259–268.

Stotland, E. (1969). *The psychology of hop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Tasker, R. V. G. (1982). Hope. In *New Bible Dictionary* (2nd ed., pp. 489–490). Wheaton, IL: Tyndale House.

Tripp, P. D. (2012). *현재를 이기는 능력, 영원*(정성목 역, *Forever*). 서울: 두란노. (원전 2011 출판).

Weis, R., & Speridakos, E. C. (2011). A meta-analysis of hope enhancement strategies in clinical and community settings. *Psychology of Wellbe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5), 1–16.

Worthington, E. L. Jr. (1999). *Hope-focused marriage counseling: A guide to brief therap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Worthington, E. L. Jr., Hight, T. L., Ripley, J. S., Perrone, K. M., Kurusu, T. A., & Jones, D. R. (1997). Strategic hope-focused relationship-enrichment counseling with individual coup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381–389.

Worthington, E. L. Jr. (2003). Hope-focused marriage: Recommendations for researchers, clinicians, and church worker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1(3), 231–239.

Yalom, I. D. (199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4th ed.). NY: Basic Books.

최갑중 (2016.1.06). 희망과 소망. <http://www.igoodnews.net>에서 2020년 3월 15일 인출.

【 Abstract 】

##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Hope in Christian Counseling

**Ahn, Kyung Seung**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emphasizes that hope is essential in people's lives and that it should further be utilized as an important resource to help people's recovery in Christian counseling. To strengthen this statement, this paper first studies how hope is utilized in general counseling. Theories such as the cognitive-behavioral approaches along with transcendental and positive psychology lay emphasis on this. Representative theories, derived insights, and the content of practical approaches are studied. Second, Christianity's hope understanding is studied, whil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 counseling and general counseling are evaluated.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f hope in Christianity as well as futuristic and modern level benefits in the perspective of salvation, eternity, and Kingdom of God are identified. By combining previous studies, this paper focuses on identifying the practical use of hope-centered counseling in Christian counseling on three aspects. First, hope should be rooted in the conversation from the beginning of the counseling process and on. To enable this, the counselor should have high level of hope and the ability to reinforce hope through questions and conversations. Next, trust building is used to emphasize counseling where hope is grown. Fundamentally having a deep relationship with God is necessary, while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and the need for a community is stressed. Lastly, confirmation and embodiment of promises help content of hope be filled with God's promises, so that it can be looked forward to and experienced.

**Key words:** hope, Christian counseling, trust, eternity, promises of God